

# 안드르고... 공천 잡음... 민주 '내우외환'

### 강현욱 전북지사 불출마 선언 등 잇단 악재에 곤혹 박주선 카드 기대 뛴... 제주지사 후보 영입도 불발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이 잇따라 공천 후유증과 강현욱 전북지사의 선거 불출마 선언 등으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 및 진대제 경기지사 후보의 상승세를 배경으로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선전이 가능하다는 기대를 걸고 있다.

있지 않아 제주-광주-전남-전북을 잇는 서부전선 구축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특히 비장의 승부수로 내밀었던 박주선 서울시장 후보 공천 카드도 당초 기대만큼의 지지율이 나오지 않고 있어 민주당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4일 광주지역 구청장 후보 전략공천 후유증으로 뒤숭숭한 분위기의 민주당에 비보가 전해졌다.

민주당은 불과 하루 전에도 무소속 출마 입장을 나타냈던 강 지사가 갑작스럽게 입장을 번복한데다 불출마 선언도 정무부지사가 대신 밝히고 정작 본인은 휴가를 내고 잠적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불출마 배경에 여당의 압력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무소속 출마 및 민주당 입당이 점쳐지던 강현욱 전북지사가 이날 오전 "도지사로서 남은 3개월 동안 도정 과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7월부터는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갈 것이다"며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다.

민주당은 강현욱 지사의 불출마 선언에도 불구하고 전북 공략은 고건 전 총리와 의대를 통해 이뤄나가고 서울시장 선거 등 수도권 공략은 민주당에 비보가 전해졌다.

민주당은 불과 하루 전에도 무소속 출마 입장을 나타냈던 강 지사가 갑작스럽게 입장을 번복한데다 불출마 선언도 정무부지사가 대신 밝히고 정작 본인은 휴가를 내고 잠적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불출마 배경에 여당의 압력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민주당은 강현욱 지사의 불출마 선언에도 불구하고 전북 공략은 고건 전 총리와 의대를 통해 이뤄나가고 서울시장 선거 등 수도권 공략은 민주당에 비보가 전해졌다.

여기에 민주당에서 은근히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무소속의 김태환 제주지사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아 제주-광주-전남-전북을 잇는 서부전선 구축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에서 은근히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무소속의 김태환 제주지사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아 제주-광주-전남-전북을 잇는 서부전선 구축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 이기명-박주선 날선 '서신 공방'

이기명 국민참여당 고문과 민주당 박주선 전 의원이 4일 서울시장 출마 문제를 놓고 공개편지를 교환하면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 있으니까 민주당이나 박 전 의원이나 선거에 초를 쳐보겠다는 생각은 모두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 고문이 박 전 의원의 서울시장 후보 도전 선언에 대해 "선거에 초를 쳐보겠다는 생각은 잘못"이라고 비판하자 박 전 의원은 "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말라는 말이나"며 강하게 반박한 것.

이 고문의 편지는 정치적 '박주선 죽이기'의 신호탄"이라며 "우리당의 무능과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이 한나라당의 유일한 존립기반인데 이 고문이 그토록 미워하는 한나라당을 돕는 것은 현 집권세력이라는 엄연한 현실에 눈을 감느냐"고 지적했다.

포문은 이 고문이 열었다. 그는 '박주선 변호사님, 결단을 하신건가요'란 제목의 공개편지에서 "서울에는

이 고문의 편지는 정치적 '박주선 죽이기'의 신호탄"이라며 "우리당의 무능과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이 한나라당의 유일한 존립기반인데 이 고문이 그토록 미워하는 한나라당을 돕는 것은 현 집권세력이라는 엄연한 현실에 눈을 감느냐"고 지적했다.

포문은 이 고문이 열었다. 그는 '박주선 변호사님, 결단을 하신건가요'란 제목의 공개편지에서 "서울에는

이 고문의 편지는 정치적 '박주선 죽이기'의 신호탄"이라며 "우리당의 무능과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이 한나라당의 유일한 존립기반인데 이 고문이 그토록 미워하는 한나라당을 돕는 것은 현 집권세력이라는 엄연한 현실에 눈을 감느냐"고 지적했다.

부권 신당과의 연합 공천 등을 통해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지사 후보는 현직 부지사 등 경쟁력 있는 인사 영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는 "전북은 고건 전 총리와 의대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강 지사가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 해서 고건 전 총리가 전에서 발을 빼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서울시장 선거 및 수도권은 국민중심당과 연대하기로 양측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라고 말했다.

금실 서울시장 후보와 진대제 경기지사 후보의 상승세 영향으로 그동안 열세를 보였던 광주·전남지역에서도 기류 변화가 느껴진다는 것이다. 특히 전북지역은 강현욱 지사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별다른 문제없이 수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은 "올해 초반만 해도 열세로 느껴졌던 광주·전남지역 지방선거 관세가 이제는 집전 양상으로 변화된 것 같다"며 "개혁성 강한 후보들이 차례대로 선정되고 서울에서부터 열린우리당 바람이 불어오면 전북은 물론 광주·전남지역 선거에서도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광주YMCA유권자운동본부 회원들이 4일 발대식 직후 각 정당 관계자들에게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비누와 때수건, 거울 등을 전달하고 있다.

## "부정연루자·전과자 등 공천서 제외해야"

### 광주 YMCA유권자운동본부 후보자 공천 가이드라인 발표

광주YMCA유권자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4일 오전 광주YMCA에서 발대식을 갖고 '5·31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참여만큼 좋은 세상'을 캐치프레이즈로 운동본부는 이날 ▲부정부패 연루자 ▲지역감정 선동 관련자

▲전과자 ▲병역비리 관련자 ▲탈법적 재산축적 및 세금포탈 관련자 등을 공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또한 이날 각 정당에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의미로 비누와 때수건, 거울 등을 전달하는 행사를 벌였다.

## 5·31 지방선거 현장

### 지사 후보 경선방식 변경 재요청

○국창근 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4일 중앙당에 전남지사 후보 경선방식 결정 변경을 재요청했다. 국 후보는 이날 중앙당 공직특위에 보낸 공문에서 "전남지사 후보 경선은 중앙당이 확정된 후원당원 8만1천334명 가운데 2천500여명으로 선거인단을 구성, 당일 직접 투표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 후보는 선거인단의 경우 22개 시·군별로 50명씩을 기본적으로 배정(1천100명)한 뒤 최소인구(3만명)를 기준으로 인구 1천명당 1명의 선거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나머지를 선정하자"고 제안했다. 선거인단 선정은 시·군별 후원당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하자는 제안이다. 국 후보는 7일 오후 2시 담양읍 지점 리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 예정이다.

대로 생계형 과중채무자의 현황과 정책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이상동씨 광역의원 출마 기자회견

○민주당 이상동 광주 북구 제3선거구 광역의원 예비후보는 4일 광주시당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노블리스 오블리주(사회 고위층의 도덕적 의무) 실현에 솔선수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당선되면 광역의원 의정비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재 필리핀스코리아 대표·광주시 북구 생활체육연합회장·광주시 해병전우회 명예회장·광주시 시민사회단체 총연합회 공동대표 등 여러 단체를 이끌고 있다. 이날 이들 단체 회장단을 포함한 1천여 회원들이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민주당에 입당했다.

### 최영중·김장용·홍종기씨 한나라 입당

○한나라당 전남도당(위원장 직무대행 박재순)은 3일 최영중(56) 전 목포경찰서장장과 김장용(65)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6개 시·도 회장동우회 대표, 홍종기(58) 전 안도모터리칭헤를링 회장 등 3명을 전남도당 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이 가운데 홍 전 회장은 이번 지방선거에 안도군수 후보로 출마한다. 박 위원장은 "최 전 서장 등은 당내에서 경찰자치와 교육자치, 지방자치분과위원장을 각각 맡아 분야별 정책개발 및 분과화살화에 주력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영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 문상필씨 광역의원 출마 선언

○열린우리당 문상필 (사)광주북구장애인복지회 이사장은 4일 광주 북구 제2선거구 광역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문 후보는 "지난 20여년간 시민사회운동과 사회복지운동, 장애인운동, 대학강의 등을 통해 익힌 경험을 토대로 광주시 사회복지 체계의 전면 재구성, 수요자 중심 복지체계의 전환, 선진형 복지체계 확립 등을 이끌겠다"고 공약했다.

### "광양대교 건설 세계박람회 상징돼야"

○전남도의원(광양1선거구) 예비후보인 박필순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전남도와 광양시간 의견차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광양~여수간 국가산단 진입도로 해상교량 설치와 관련 "광양대교는 2012년 개최될 여수 해양엑스포에 맞춰 광양관경을 상징하는 다리로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미국의 금문교와 호주의 하버브릿지 등이 지닌 상징성을 고려해 광양대교는 광양제철소와 세계박람회를 상징하는 역사적 기념비가 되도록 교각 거리를 2012m로 건설, 세계박람회 개장식에 맞춰 완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략공천 의혹 해소 근거 제시를"

○전략공천에 반발,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단식 농성 중인 신현구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4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종말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막기 위한 총정일자 교육지책"이라고 단식의 이유를 밝혔다. 신 후보는 이 성명서에서 "민주당이 계속 귀를 막고 눈을 감은 채 '아무 문제없다'는 말로 영부세처럼 뒤돌아 해 시민의 뜻에 항명한다면 민심을 좇기 위한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전략공천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해소할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신용회복지원센터 설치 공식 제안

○오병윤 민노당동당 광주시장 후보는 5일 광주 상무지구 후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용회복지원센터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오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민노당 가계부채 SOS상담실의 상담 자료를 토

### "당·공특위 비난 발언 일고 가치없다"

○민주당 소속의 서재원 광주시의회 부의장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전략공천을 비판한 반명환 시의회의장을 비난했다. 서 부의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반의장이 민주당과 중앙당 공특위를 비난했던 발언들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내용"이라며 "2년 전 광주시의회의장 선거에서 해당 행위를 했던 자신의 행동을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 "주민소환·주민투표 서둘러라"

광주·전남연대 의원들에 촉구  
5·31지방선거광주·전남연대는 4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주민자치 및 기초의원 선거구 관련 6대 입법과제를 반드시 통과시

켜줄 것을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했다. 광주·전남연대가 제시한 6대 입법과제는 주민소환·주민투표·주민발의·주민소송 등 주민자치 4대 입법과 유급화에 따른 지방자치법 개정, 기초의원 선거구 관련 선거법 개정 등이다. 광주·전남연대는 "지난 17대

당선확신!!  
한국정치지도자연수원  
161-0611-826-8523-4  
161-017-803-8524

최첨단 시설이 겸비된 사무실을 저렴하게 빌려드립니다  
연우개발 빌딩 관리사무소 161-011-401-4000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담양한과에서  
시제·제사상을 차려드립니다  
담양한과  
161-0611-383-8283

삼보전기온플랜빌  
삼우상사  
161-728-8742  
232-8283  
528-8282